

할렐루야!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부흥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히박국 3장 2절

애즈베리 부흥운동, 미래 사역위한 패러다임 제시

CT, 애즈베리 현장 직접 참가한 마이클 맥클림드 교수 미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마이클 맥클림드(Michael McClymond)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현대 기독교 교수이다. 그는 Encyclopedia of Religious Revivals in America, 2권의 편집자였으며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의 공동 저자(Gerald McDermott와 함께)로, 미국 교회사에서 부흥/영적 대각성 운동 연구 대가이다.

그는 최근 미국 사회에 영적 쇠신과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애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을 직접 참여하면서, 이번 부흥 운동을 통해 미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What Revivals Can Teach Us: A revival historian looks at four possible lessons from Asbury).

애즈베리 부흥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부흥이다. "영적 약탈(?)"로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들도 없고, 극단적이거나 기이하거나 심술궂은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중했다. 성소 안에서 나는 과거 부흥회에 자주 참석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전혀 보지 못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계시 노래", "10,000가지 이유(주님을 축복하소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님"과 같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눈에 띄는 인간 지도자도 없고 많은 설교도 없이 회중 찬송으로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100,000명이 회심했다.

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5,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한다. 애즈베리 지도자들은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고 고백하지만, 최근 부흥의 영적 DNA는 몇 가지 예비적인 시사점을 지적한다:

적 또는 재정적 타협에 빠졌다. 하지만 유명한 영적 각성이 있다면 어떻게? 흑암의 왕자는 당황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각광을 피하고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겸손하고 익명으로 봉사하는 부흥을 그가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을까? 오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타락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을 추문에 빠뜨릴 수 있었는가?

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매주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경험은 개인적으로 참석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통역을 통해 말하는 한 칠레 여성은 애즈베리의 부흥회 소식이 라틴 아메리카를 전율시켰다고 말했다.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남쪽을 향해 서서 손을 내밀라고 말했다. 나는 1905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신자들이 웨일즈 부흥의 지도자인 에반 로버츠에게 그와 다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답장을 보내 자신의 기도를 확인시켜 주었다. 오순절과는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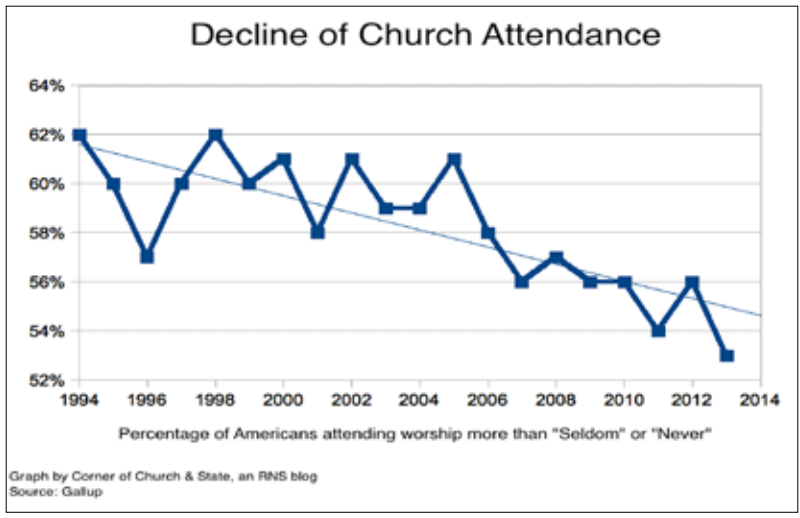
1. 유명 부흥사들의 컬트와 문화를 거부한다. 지난 세기 동안 미디어가 진화함에 따라 유명 부흥 운동가들도 진화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쁨 부음을 받았고 성령이 부여되어 그들의 말이나 육체적 존재가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유명한 부흥 운동가들은 책임감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초기에 약속을 보였지만 나중에 그들의 사역을 끝내는 성

애즈베리의 무대에서 리더들은 "여기에는 연연인이 없습니다. 유일한 유명인은 예수뿐"이라며 "신세대가 초자연적인 것에 간절히 굶주려 있고 어떤 형태의 종교적 오락에도 반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무형의 요소, 즉 "신성한 임재와 회중의 느낌(je ne sais quoi)"은 이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없다.

따라서 애즈베리는 구체화된 영성과 구체화되지 않은 매개화에 반대하는 쿠데타이다. YouTube, Facebook 또는 TikTok이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널리 퍼진 개념과 충돌한다. 이번 부흥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교회 출석 감소와 절망사 증가는 정비례!

TGC, 미국 사회 종교 집회 참석률 감소와 절망사 증가에 관한 상관관계 제시
미국에서는 종교 집회 참석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절망사(Deaths of Despair)가 증가 추세이다. 이 두 트렌드는 서로 연결된 걸까? (Why Falling Religious Attendance Could Be Increasing Deaths of Despair).

최근 발표된 설문 조사(Faith After the Pandemic: How COVID-19 Changed American Religion)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종교 안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던 변화 추세에 속도를 더했다. 종교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미국인의 수는 지난 이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고, 현재 미국 성인 세 명 중 한 명은 종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젊은이, 독신자, 그리고 자정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다른 미국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종교 집회 참석을 중단했다.

2022년 봄, 종교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미국인은 33퍼센트로 보고되었다. 팬데믹 이전에 그 수치는 네 명 중 한 명(25%)이

었다. 이에 반해 교회에 자주 갈 정도로 종교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받은 변화는 그보다 덜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26퍼센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 집회에 참석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인 2022년 봄의 수치인 24퍼센트와 비슷하다. 팬데믹과 관련 없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인구 통계에 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보수주의자, 50세 이상의 성인, 여성, 기혼 성인, 그리고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전후 두 기간 모두에서 다른 그룹보다 교회에 더 자주 출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부른초장
이지용 목사

16면
인터뷰
이용걸 목사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발행인 칼럼

허리는 든든하십니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올겨울의 첫눈과 함께 2월은 가고 꽃망울이 터지는 3월이 되었다. 3월은 삼일절로 시작되었다. 3월이면 삼일절과 함께 또 무슨 생각이 나시는가. 나는 매년 3월이면 허리 생각이 난다. 뜬금없이 허리라니. 어느 해 3월에 무슨 일이 허리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다. 3월이면 누구에게나 묻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허리를 빼앗으면 온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 함께 힘들어한다. 가끔 허리 수술을 받는 사람을 본다. 수술을 통해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수술은 아니더라도 허리를 고질적으로 아파하거나 허리에 힘을 못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3월이면 묻는다. '허리는 든든하십니까?' 3월에 굳이 허리가 든든하냐고 묻는 것은 3월은 대부분 사순절 기간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해가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순절은 한 해의 영적 허리와 같은 시간이다.

허리와 같은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곧 허리를 다시 든든히 하는 길은 사순절에 기도하는 것이다. 사순절의 기도가 다른 때와 다른 것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무엇을 달라기보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자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엇을 드릴까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 기도 가운데 나를 섬세하게 했던 누구에 대한 미움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내 자신도 따뜻해지고 다른 이를 보는 관점도 한층 온유해진다. 욕심과 근심과 교만과 절망과 비방과 불안과 어둠과 거짓과 탐욕과 비교와 비겁과 교독이라는 온갖 죄를 십자가 아래 묻는 사순절 기도의 유익은 한둘이 아니다.

애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이 3월에도 계속 되고 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은 복된 소식이다. 이번 부흥의 특징은 다른 부흥과 달리 charismatic 한 요소가 엿보이지는 않는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筮歌) 같이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깊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롭게 빛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허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짝여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내 무슨 낮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리이까?" 사순절 기도의 방향을 잡아 줄 주기철 목사의 옥중 글이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과 대면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 드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걷고 기도한다면 영적 허리의 모양새와 견고함도 한결 달라질 것이다.

튀르키예 지진 후폭풍, 슬픔이라는 트라우마!

BBC, 지진 생존자들은 어떻게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도

최근 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파괴적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고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런 상황은 작간접적으로 비극에 휩싸인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끔찍한 피

해를 입혔다. BBC는 생존자, 수색 및 구조 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Turkey earthquake: How survivors cope with trauma).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의 어둠을 헤치고 BBC 팀이 안타키아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다.

BBC팀의 차는 고장 났고 새롭게 구한 차의 운전사는 팀을 도심으로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

지진이 터키 남동부를 강타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BBC 팀은 지진의 진원지인 마라스에서 왔다. 이미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숫자는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BBC 팀이 주요 도로를 따라 안타키아로 내려가는 동안 잔해 사이로 구급차의 끊임없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호 트럭, 불도저 및 자원 봉사자들은 모두 수 마일에 걸쳐 늘어선 교통 체증에 갇혔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완전한 혼돈의 상태였다.

부르크 갈립 아쿠르트와 터키 자원봉사 구조 협회 아쿠트(Akut) 소속인 그의 팀은 4층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잔해 밑에 10명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 중 5명은 어린이라고 추정했다.

그들의 햇볕은 잔해의 어둠을 꿰뚫었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칼처럼 튀르키예를 가르는 질문을 외쳤다. "제 말 들리시는 분 있나요?"

그들은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화답하거나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나 딸각하는 소리 같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본 기사는 조용한 순간에 부르크에게 "잔해 밑에서 목소리가 들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구조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지만 임무가 끝나면 감정이 그에게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목격한 모든 것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신이 본 것들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며 "그것은 충격적이고 매우 극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이 작업하던 아파트 블록의 잔해 아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본 기사는 딜렉 에거를 만났다. 그는 8시간 동안 갇혀 있다 이웃 마을인 이스켄데룬에 있는 건물에서 구조됐다.

그는 "떨림이 엄청나게 심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며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남자 형제 모두 조용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딜렉의 부모와 형제는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깨

진 유리에 둘러싸여 갇혀 있었고 머리 꼭대기만 드러나 있었다. 가족의 친구가 그녀를 알아보고 맨손과 칼로 구출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 이를 동안은 전혀 울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거실 소파에 누워 자신의 시련에 대해 기자에게 부드럽게 이야기 하면서 눈에 보이게 모든 감정을 쥐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자신이 껴안고 있는 사진에 키스하고 아무런지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는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쉬셨다"며 "죽을 때도 내 위에 있던 어머니가 날 구해줬다. 난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남자 형제는 다른 방에 갇혔고, 아버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바로 이때가 온 세상이 무너지는 때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당신이 목격하는 순간이다. 나는 분노나 복수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너무 허전하다"고 말했다.

딜렉은 지진에서 살아남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이지만 이제 그녀는 영원히 상처가 남을 수도 있는 삶에 직면해 있다.

그는 "이번 주에 나는 다른 생존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잔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썼다'고 전했다.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의 생존자들이 초기 충격, 불안 및 두려움이 곧 거부 상태로 대체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한다.

튀르키예 심리학자 협회의 케게이 두루는 이 정도 규모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삼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에즈베리 부흥운동, 미래 사역위한 패러다임

(1면에서 계속)

3. 부흥에 대한 칼빈주의와 웨슬레-알미니안의 조화로운 접근

1800년대 초부터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성격과 감정적 기술에 대한 부흥주의적 초점에서 펠라기우스 이단의 망령을 인식했다. 기독교 부흥에 적용되는 펠라기우스의 태도는 “부흥이 있어야 한다 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는 부흥을 일으키는 기술과 방법에 중점을 둔다. 부흥이 인간의 노력, 에너지, 조작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뉴 라이트 칼빈주의자들은 부흥을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은혜에 의해 “보내진” 것으로 생각했다. 일반적인 비유에 따르면, 농부는 땅을 갈 수도 있지만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하늘의 소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칼빈주의자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은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과도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칼빈교도와 다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종종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자기만족이나 속명론에 대한 망토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주의 “부흥”과 비칼빈주의 “부흥” 사이의 대조는 과장되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흥을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냄 받은” 부흥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칼빈주의자들은 그들 사이에 나타난 작은 은혜의 섬광을 불태우기 위해 수고했다.

에즈베리에 관한 어떤 것도 인간 중심의 부흥 운동에 대한 친숙한 비판과 일치하지 않다. 감리교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즈베리 부흥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데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대한 자발성과 충실성의 표시를 보여준다. (칼빈주의자로서 나는 동료 칼빈주의자들이 그것에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에드워즈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기 전에 방문하기를 바란다.)

4. 오순절 유형의 부흥과 반 오순절 비평가를 연결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부흥을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에서 오는 비범한 축복”이라고 정의한다. 에즈베리 입에서는 회중 찬송, 성경봉독, 기도와 같은 “보통의 수단”이 은혜의 계절에 “비범한 축복”을 거두고 있다. 감리교 부흥 전통은 참담한 오순절 대 반 오순절 분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향유가 될 수 있다.

감리교는 독립적인 은사주의의 가장 먼 변두리와 일부 고백 개신교의 완고한 반 부흥주의 사이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재 위치에 있다. 존 웨슬리는 비정상적인 영적 경험에 개방적이었지만 파괴적인 영성, 이상한 교리, 형제적 교정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전도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개방하는 이러한 웨슬레식 태도는 에즈베리 부흥이 부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오순절파와 반 오순절파가 감리교 중간에서 만나 서로에게 마음과 생각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었다.

은사주의자로서 나는 동료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훈을 본다.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운동의 일부는 성경, 잃어버린 자의 구원, 회개,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기초에서 왕좌의 환상, 천사의 만남, 마지막 때의 추측에 찬성하여 표류했다.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며 에즈베리는 반 오순절주의자가 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오늘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반오순절파만이 아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극적인 경험이나 은사의 고린도전서 12장 목록을 유일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취급할 때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한다. 성경은 성령이 치료자이시며 선물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책망자, 회심자, 위로자, 성화자,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친다.

에즈베리는 구원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이다. 죄에 대한 자각은 초자연적이다. 고통과 상실에 대한 연민은 초자연적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넓은 이해와 완전한 스펙트럼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그것이 캠퍼스와 그 너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가 이처럼 흥분할 정도로 희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부흥에 관한 흥미로운 저자는 사회과학자 앤서니 월리스(Anthony Wallace)이다. “재생 운동”은 문제, 패러다임 및 권력 단계의 세 단계로 나뉜다.

문제 단계에서 사람들은 현실 지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오래된 길은 막 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패러다임 단계에서는 반동적이지도 않고(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음) 급진적이지도 않고(과거를 거부하지도 않음) 리더 또는 리더 그룹이 등장한다. 권력 단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중 운동이 된다.

이러한 통찰력을 세계 교회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교회는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문제 단계에 갇혀 있다. 낡은 길은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오순절주의 대 반오순절주의 등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분열을 포함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도와 제자 삼기에 대한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시

간, 관심,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문제 단계에 있다는 한 가지 징후는 부흥에 대한 논쟁이 진부해지고 예측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에즈베리 부흥은 패러다임 단계를 나타낼 수 있다. 월라스가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패턴을 재작업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라 에즈베리 접근 방식은 반동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다.

패러다임 단계는 지도자들이 신앙성경을 재발견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과 실천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무처럼 떠오르는 패러다임은 가지를 펼칠 수 있기 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새로운 운동에 대한 도전은 특히 운동이 현상 유지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패러다임 단계에서 권력 단계로의 전환에서 올 것이다. 권력 무대에서의 반대는 보수파와 급진파 모두에게서 나올 것이다.

영적 부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고하게 중도주의를 유지하고 보수주의자나 급진주의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부흥 조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지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 기독교 부흥에 대해 읽고 썼으며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학자로서, 부흥에 대한 조언을 드린다.

당신이 신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그들 사이에서 기도와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열망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면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반응은 무엇보다 먼저 기쁨이어야 한다.

자신을 성령에 관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이와 같은 기사를 쓰는 나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각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 일뿐이다.

성경에 의지하고 목회자와 다른 영적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분별력을 주시도록 해야 한다. 주님은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신다(빌 1:10).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 사건과 달리 영적 사건은 오감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효과를 통해 분별된다는 의미이다.

부흥의 지도자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신자들과 함께 당신의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라. 다른 인종, 민족, 사회 집단 또는 교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의 목적을 만든다. 그들과의 더 큰 연합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

에즈베리 모델에 따라 젊은 기독교인을 경험 많은 지도자와 함께 모아야 한다.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는 강력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시론

Forget & Forgive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실증주의 신앙”에 힘이 쏠립니다. 아무리 겉으로 튼튼하게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병든 나무이고, 겉으로는 비실비실 보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건강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마 12:33) 믿음도 보입니다. 임의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며 “예수믿음”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순간마다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 생명의 빛”을 비취 5:16)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롬 12:1)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 예배”인가? 저의 이번 사순절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 속에 얼마 전 하늘나라로 이사 가신 ET 할아버지가 떠올라 사순절에 함께 나눕니다.

‘E.T.할아버지’로 알려진 채규철 (1937-2006)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만, 나 이제 급히 감세”였습니다. 환경도 함흥에서 농촌 목회를 하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6:25 때 혼자서 서울로 내려와 길거리나 천막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서울시립농업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후 덴마크로 유학 갔다가 돌아와 찬란한 희망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는 장거리 박사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일종의 민간의료보험인 “정심사의료조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1968년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온몸이 불에 타 숲검정처럼 변했고 얼굴은 도깨비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끈질겼습니다. 무려 30여 차례가 넘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머리칼로 눈썹을 심고, 어깨 살갓을 떼어 눈꺼풀을 만들고, 입술은 가슴살로 되살렸고, 오른쪽 눈엔 의안을 넣었습니다. 손은 갈고리처럼 휘어져 손가락까지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껌껌이질 않는 의안이며 왼쪽 눈은 살에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진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청심사운동에 가담하여 1982년까지 ‘서울 청심사 의료 협동조합’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 1970년에는 간질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임인 ‘장미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어 1975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분부”를 창립해 돌아가실 때까지 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모세 채규철’로 불렀고, 절없는 아이들은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따랐습니다. ET는 외계인같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타버린 사람”의 존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촌계몽운동”에서 비롯된 그의 교육 사업은 1986년 경기도 가평에 설립한 ‘두밀리 자연학교’로 연결됐습니다. ‘어린이가 바로 세상’이라는 철학을 이곳에서 실천했습니다. 평생을 계몽과 교육, 봉사 사업에 헌신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F’가 두 개 필요해. ‘Forget (잊어 버려라)’, ‘Forgive(용서하라)’. 사고 난 뒤 그 고통 잊지 않았으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았어.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걸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 받는 거야.” (조선일보 관련기사 참조)

비록 외모가 흉측할 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의미있는 그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는 여전히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항상 남아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갔기에 오늘까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평생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사셨던 어른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남긴 2F, “Forget, Forgive”를 이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있을 거 잊고(Forget), 지울 거 지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Forgive),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의 “ET”, “작은 예수”,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인 그 한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미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진 자로 갔으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내게 주신 달란트와 그릇대로 small christ로 사는 삶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 실천하며, “Forget, Forgive”의 삶을 통해 예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2023년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astor.eun@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년 여름 성경학교(VBS) 동안 배운 찬양입니다. 원래는 한국어로 쓰인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영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1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2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평생 소원도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이십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인데, 이 단어는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합성어로서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다, 존경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란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사카’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절하다. 입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의와 영광을 표현하며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우리의 찬양, 기도,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 간에 계속되는 사랑과 생각의 교감입니다.”라는 A.W. 토저 목사의 말처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로,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꾼인 개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목동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은 단지 예배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제물의 내용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예배에 관한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 민족과 방언이 드릴 예배의 예고편이고, 삼위일체 공동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시와 찬미와 악기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는 개인적인 예배(삶의 예배)와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균형을 이루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오래전 실로라는 지방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한나요. 또 다른 여인은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아들이 없는 죄도 있지만, 더욱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상황은 그 시대의 실로라는 마을의 참담한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지역으로서 여호수아는 이곳 실로 12지파를 제비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으며, 사사시대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내려오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여호와와 도움을 받기 위해 실로에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전투에서 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제 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스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인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실로인 것이다.

블레셋은 빼앗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자,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기약하여림에 있게 되고, 20년 후에 다윗 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결코 실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 하지만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부인이 대를 이을 자식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평생 가족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심한 경우는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기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자, 브닌나는 그것으로 인해 더욱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한나는 남편과 함께 실로로 예배드리러 가서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을 응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미래 또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괴로운데 브닌나가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자 마음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처음에는 낙심되어 울며 음식도 먹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계속 그리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나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제물들이 분향단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이 억지로 빼앗아 먹어 버리고, 회막 문에서 수모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1년 3차례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지파, 두 지파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집들이 늘어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들을 주시며 평생을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께 받치겠나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 남편 엘가나에게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갔고, 주님께 구함으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 이를 짓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앞에서 서원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몇몇 부모들도 한나처럼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L.A지역에서 어느 장로님이 담임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면서 “우리 큰 아들 좀 말려 달라고요” 하더군요. 자초지경으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 이를 짓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앞에서 서원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몇몇 부모들도 한나처럼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L.A지역에서 어느 장로님이 담임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면서 “우리 큰 아들 좀 말려 달라고요” 하더군요. 자초지경으로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주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한나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자녀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들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하기 이전에, 부모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녀들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의 지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한나는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던 한나, 눈물로 식음을 전파하고 살던 한나는 정말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나처럼 때로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인도하는 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nygo4tgc@yahoo.com

지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19-28

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렇게 울어 본 적이 있나요? 자식이 없어서 울어 본 적이 있나요? 자식은 있는데 남들처럼 번번한 자식이 아니어서 계속 여러분의 속만 썩여서 속상해 흐느껴 울어 본 적이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며 울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나요? 아니면 학력 미달인 나를 그 잘난 명문대 졸업자 때문에 격분하고 열등의식 때문에 울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기가 없는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모든 수모를 한 몸에게 당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 한나!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그녀의 삶은 심히 격분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비참하고 참담했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1.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

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영혼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많이 울며(통곡하며) 기도했고 (10)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고 (11)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고 (12)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쏟아 부으며 기도했습니다. (15)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단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하나 주세요’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종 한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구할 그런 아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로 성막에 1년에 3차례 올라가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행동과 비행에 대

응답받았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로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 살던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져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합니다. 실로의 영광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이 불타는 모습을 뒤로 한채 등에 붓집을 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기억)하셨습니다” (the Lord remembered her) (19)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음을 알았기에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응답받았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로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 살던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져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합니다. 실로의 영광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이 불타는 모습을 뒤로 한채 등에 붓집을 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태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녀의 작정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배우며 생활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몇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사무엘을 기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어머니의 책임을 다함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enn State(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도록 권장했다 도대체 무엇을?



쉽게 번가에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 이런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동영상에 논란을 일으킨 후에 바로 비공개로 바꾸었지만 학교측에서는 Sam Richards 교수를 지지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교수진에게 학문적인 자유로운 강의가 필요하다고 매우 poor excuse (핑계/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임무는 교육의 우수성을 육성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준비를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교육부는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학교뿐만이 아닌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강의에 허용되고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Sam Richards 교수의 수업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의 자녀가 듣고 있는 수업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학교”가 올봄에 드디어 열립니다. 자녀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문제 파악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지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Tvnext.org 홈페이지에 자주 와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Penn State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맡았던 Sam Richards 교수의 수업은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며 주제를 탐구하는 인기 있는 선택 과목입니다.

Sam Richards 교수는 그가 강의하는 사회학 수업에서 “트랜스 이슈, 트랜스-디렉터리 급진적 페미니스트 (TERFS), 그리고 바이너리”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게이나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던 성적인 면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Sam Richards 교수는 “만약 당신이 이성애자라면, 게이나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고 얼마나 빨리 흥분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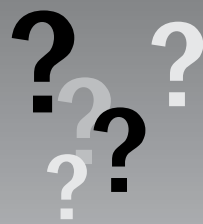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꼭 게이나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Sam Richards 교수는 유튜브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학생들과 논의하는 방송을 자주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한 영상에서는 중국이 3-40년후에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중국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니 중국어를 미리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친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였던 학생에게 전해 들었던 서서 소변을 보는 방법, 즉 가죽 같은 것을 동그랗게 말아 서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미국에서는 13일이라는 날짜를 싫어하고 금요일을 싫어하고 13일 금요일은 안 좋은 날이라고 해서 비행기도 잘 안 탄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요 미신인지요?

- 하버에서 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도 4층이 없고 4층 대신 5층이나 F(Four) 라는 단어를 씁니다. 4층은 한자로 죽을 死 라서 그런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13일 금요일 역시 성경에 근거한 것보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전공하신 김인수 목사의 “매일의 목상”이란 책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합하여 13명이라고 합니다. 이 13사람을 차례로 세어보면,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유다 인데 마지막 13번째가 예수님을 판 가롯유다입니다. 그래서 13을 재수 없는 숫자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마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숫자는 아니지만, 금요일을 미국인들은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기리는 뜻에서 카톨릭교회는 금요일에는 육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만 먹습니다. 이에 따라 1년 12달 중에 금요일이 겹치는 날은 가장 재수 없는 날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미신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수천 년간 기독교 문화권에 살던 미국 사람들도 터무니없는 미신에 마음이 쓰여 많은 사람이 비행기 예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수난기간의 절정인 금요일은 기독교에서는 성금요일로 Good Friday(좋은 금요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갈 3: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마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The saving event)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의 원조인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은 복이란 단어를 happiness란 단어를 쓰지 않고 blessing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blessing이란 단어는 bleed(피를 흘리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통해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33: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8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8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유치, 청년, 종교대학: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토) 새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6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8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arn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영아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635-1842(H), (254)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운교회)

“본향 집으로 돌아갈 준비”

지진, 팬더믹, 허리케인, 쓰나미 등 이런 용어들은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팬더믹으로 온 세상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당사자들이나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 팬더믹이 찾아왔을 때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접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일컫는 뉴욕의 거리가 매일 죽어 나가는 수많은 시신들과 거리에는 모든 통행이 금지된 채 정적만 흐르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팬더믹의 피해를 경험하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꼽을만한 대지진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나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동되지 않을 가지 분명한 사실을 상기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든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피난처가 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재해가 들이닥치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자연재해가 들이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는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다른 모든 기초는 침몰하는 모래성과 같습니다(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어떤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줄 완전한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 일을 거의 마칠 때가 되면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언제 본향 집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본향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고, 불필요한 것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기에는 본향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본향 집으로 돌아갈 준비는 진짜 인생을 구하고, 진짜 신앙을 구하고, 진짜 진리를 구하고, 진짜 길을 구하고, 진짜 생명을 구합니다. 그 모든 진짜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이상 진짜가 아닌 인생과 진짜가 아닌 신앙과 진짜가 아닌 진리와 진짜가 아닌 길과 진짜가 아닌 생명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개종 사실상 불법' 2만인도교인 거리 나선 까닭

인도 기독교인 2만여 명이 반기독교적 행보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정부에 대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현지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선교사도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날로 심해진다고 증언했다. 28일 인도에서 활동 중인 인도 선교사 A씨와 미국 크리스체리티투데이(CT) 보도를 종합해 보면 80개 이상의 교단 출신 교회 지도자와 인권 운동가, 수천명의 기독교인 등 2만2000여명이 지난 1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정부의 종교 개종 금지법 제정 및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자들은 평화의 상징인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검은 완장을 찬 상태로 길거리에 섰다.



시위는 예배를 진행하고 찬양을 부르는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CT는 전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행진하며 설교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표적이 되는가에 대해 공유했다. 인도 중부지역 출신 시위 참석자인 부펜드라 코라는 “힌두교 급진주의자가 기독교인에게 신앙 개종이나 주거 철거, 죽을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한 사람은 공격받았으며, 이들의 집과 예배처는 철거됐다”는 현지 상황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8년 취임한 뒤 인도 내 기독교 박해 신고 건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년 연합기독교포럼(UFC)에서 접수된 기독교 박해 신고 건은 142건이었으나, 2021년은 486건으로 3.5여배가 증가했다. 모디 정권은 2021년 종교 개종 금지법을 입법했고, 현재는 12개 추가 이를 받아들였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이 법이 힌두교인의 개종을 불법이라며 막는 것으로 사실상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 서부지역에서 13년째 선교 중인 A선교사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종교 개종 금지법이 통과된 주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부수고 기독교 활동이 보이는 곳에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가정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을 죽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자식의 상속권한을 없애거나 아예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A 선교사는 본인이 사역하는 사탕가 교회에서 금일내 23명에 대한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농산물 공급난에 '채소 구매 제한' 확산

영국에 채소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

의 채소 구매를 제한하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늘고 있다. 27일 BBC,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테스코(Tesco), 아스다(Asda), 알디(Aldi), 모리슨즈(Morrisons), 리들(Lidl) 등 영국의 5개 대형 슈퍼마켓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채소 양을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앞서 4개의 슈퍼마켓이 채소 제한을 도입한 데 이어, 리들이 이날 공급망 차질로 인해 고추, 토마토, 오이 구매를 1인당 3개 품목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영국 식료품 유통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6개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 중 5개다. 나머지 한 곳인 세인스버리(Sainsbury's)는 현재 채소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채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농업 단체인 '레아 벨리 재배자 협회(LVGA)'의 리 스타일스 사무국장은 “영국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식료품의 양이 예상 수입량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고 파이낸셜타임즈에 말했다.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들이 채소 공급 부족을 겪자 마크 스펜서 식품농업부 장관은 이날 주요 슈퍼마켓의 대표들을 소집해 화상 회의를 가졌다. 스펜서 장관은 이들 업체가 채소 판매 대를 채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채소 공급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들에게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 '잠룡' 디센티스, 보수 성교육 반대인 디즈니에 보복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를 운영해왔던 월트디즈니 컴퍼니(이하 디즈니)가 56년간 누려온 특권을 빼앗기게 됐다. 플로리다주가 추진하는 보수적인 성교육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보복이다. 로이터통신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지



사가 디즈니의 디즈니월드 자치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디즈니월드 소속 지구인 리디크리크를 감독할 이사진 5명의 지명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칭을 '리디크리크 개선지구'(RCID)에서 '중부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CFTOD)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사회는 디즈니월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호텔 신축이나 추가 연결도로 건설, 시설 확장 등 디즈니월드 개발에 의결권을 가진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올랜도 디즈니월드 일대에 지정된 특별 행정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디즈니는 1967년 플로리다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의회를 설득해 특별지구로서 준정부기관처럼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 권한으로 허가 없이 부지를 개발하거나 세금을 부과했다.

특별지구 지정은 디즈니가 올랜도에 대형 레저 복합단지를 개발,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1년 개장한 올랜도 디즈니월드는 현재 4개 테마파크와 20여개 대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7만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2021년에는 362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50년 넘게 누려왔던 특권은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동성애 교육 금지법'에 반기를 들면서 내려놓게 됐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금지하도록 한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했다.

애초 디즈니는 이 법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성 소수자 혐오를 방관한다는 비난이 일고, 직원들도 사측에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밤 체이펙 당시 최고경영자(CEO)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은 퇴출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격분한 디센티스 주지사는 직접 주의회에 디즈니에 대한 각종 제재 혜택을 박탈하도록 요청했다. 사실상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 디즈니는 주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건축, 환경 등의 규제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해 4월 디즈니에 제공한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했고, 이 법은 올해 6월 발효될 예정이었다.

美·캐나다·일본 '틱톡 금지령' '정부 데이터 보안 위협'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령을 내렸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모든 기관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 프로그램을 앞으로 30일 내에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틱톡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 이에 대한 시행 명령을 60일 안에 내리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은 이미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했다.

브록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이것이 세계 다른 정부들에 청사진이 되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틱톡 금지령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공문을 인용해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최고정보책임자가 정보 보안을 위해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 중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틱톡 외 다른 SNS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상의 이유로 SNS를 금지한 것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다.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보육시설 짓고, 초과 수익 공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사 주매입 제한, 정부와 특정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 조건에 근로자들을 위한 사내 보육 시설 보장 등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위한 390억 달러 지원금을 책정해 28일부터 1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NYT는 “(보조금 신청 기업은) 상세한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정부는 예상치 못한 초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을 과장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은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에 더해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기업이 꼭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장려해, 납세자의 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진 후폭풍...

(2면에서 계속)

그는 이 슬픔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심각한 장애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잘 지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

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돕고 이 모든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요.”

두루는 정상성은 지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새로운 표준은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

이 걸린다.

하지만 새로운 지진이 이미 황폐해진 하타이 마을을 강타했을 때 이러한 작업의 어려움이 부각됐다. 추가 지진은 처음 두 지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거리에서 절망에 빠져 울며 그들이 끝없는 악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분

노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제 본 기사는 재난 지역을 떠나 이스탄불에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둘러싸여 있다. 이 트라우마만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듯 본 기사의 TV 화면과 휴대폰에 붙어 있다.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가 주요 단층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도 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슬픔이 시작되면서 대량 트라우마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터키의 또 다른 큰 과제가 되었다.

VII. 기독교론 (Christology) (2)

C. 예수님께서 한 인격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두 본성을 가지신다 (two natures in one person).

2.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잠 28: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과 인간의 마음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논리는 언제나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져야 한다.

1) 종교 개혁 이전:

에비온 (Ebionites)파는 유대주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알로기 (Alogi)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로고스 (logos)는 인격이 아니며, 단순한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중에 4세기에 와서 아리우스가 나타나 로고스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보다 매우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이 니케아 공의회 (A.D. 325) 에서 성경적으로 바른 기독교론이 확립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기독교론을 정립했다.

2) 종교개혁 후:

슐라이어마허 (Schleiermacher)는 그리스도는 하나님(神)이 아니라, 신의식(Gottesbewußtsein/ Go-consciousness/神意識)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리스도는 신의식의 능력으로 중보자(Mittler/ Mediator)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슐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불완전한 "인간성"(Menschheit)을 일깨우는 사역이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사역을 제외시켰다.

리츨은 (1839-1889)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신처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슐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칭해졌고, 그의 후계자인 리츨은 그와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실제로 구성하고 수립한 사람이다.

헤르만 (Wilhelm Herrmann, 1846-1922)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고, 다만 예수님의 개인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 준다고 주장한다. 헤르만의 개인 생활이 워낙 모범을 보였기에 메이첸 교수가 독일 마르부르크 (Marburg)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헤르만에 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헤르만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폴 틸리히 (Paul Tillich, 1886-1965)는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람의 출생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라는 고백으로 시작된다. 이 고백이 계속되는 동안 기독교는 존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30년간 살아온 개인 예수와 그 후에 생긴 신화적인 전통과 관련된 그리스도라는 이름과의 연합이다" 주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틸리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에 손상을 준다"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징"이라고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릇이 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잘못이며, 신화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주장했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다. 틸리히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이지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론을 세웠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으로 존재하신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성경은 예수님께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출생 (눅 2:7), 성장하심 (눅 2:40), 시험을 겪으심 (마 4:1-11), 주리심 (마 4:2) 피곤하시고 주무심 (요 8:24), 눈물을 흘리심 (요 11:35; 19:28) 등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준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자신의 인성을 많이 보여주셨다. 특별히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 (눅 24:30; 41-43).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되심을 보여준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히 4:15-16)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딤후 2:5-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본질적으로 신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고후 5:21) 예수님은 "죄를 알지

(vere deus vere homo) 규정함으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했다.

네스토리우스 (Nestorius, AD 386-451):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며, 두 성품의 두 인격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two natures in two person). 네스토리우스의 잘못된 이 주장은 에베소회의 (AD 431)에서 정죄되었다. 그리고 20년 후 칼케돈 회의에서 다시 정죄되었다. 이후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동방으로 향했고, 중국 당나라 시대 장안에서 포교하여 경교 (景教,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서는 경교)가 매우 유행했다 (AD 635년). 그리고 신라에 까지 전파되었다. 1956년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 중 석제 십자가, 동제 십자가 등이 발견되

어 경교 (네스토리우스파)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경교가 당나라를 통해서 통일 신라에까지 전래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태케스 (Eutyches, AD 380-456): 유태케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제 3의 성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 3의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 칼케돈 회의 (AD 451) 에서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정통 교리를 확고히 세우면서 "주님이시오, 독생하신 자는, 양성(兩性)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in two natures, inconfusedly, unchangeably, indivisibly, inseparably) 확립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이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시다는 신조를 확립했다.

칼케돈 회의에서는 한 인격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성 (완전한 하나님/사람)이 매우 모호하고, 지혜롭게 변증하면서,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강조를 부각시켰다. 성경에서도 부정을 통한 긍정의 강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새에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 21:4) 또한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슬데 없으니" (계 22:5).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교리는 칼케돈 공의회 결정은 가장 성경적이고, 매우 잘 정리되어있다.

D. 그리스도의 지위 (States of Christ)

1.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빌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됨"을 의미한다.

1)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눅 19:10; 요 3:16; 빌 2:5-11; 요일 3:8).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는 없으시다.

2) 고난당하심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었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가? 예수님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

(빌 2:7) "자기를 비어" (ἐκένωσεν, emptied himself),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위와 영광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신성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께는 고난이다. 또한 친 백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신 것도 고난이다. 온갖 종류의 많은 시험을 당하셨다.

3) 죽으심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와동시에 질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 그 순간에도 신성과 인성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신성이 인성으로부터 떠났다면, 강도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

4) 장사지남: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극치이다. 사도신경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시" 말은 "예수님이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칼빈).

KHL0206@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사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4)

* 교리 1의 적용: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6) 무엇이 참된 회심인가?

회심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회심은 결코 꺼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천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탁월하심을 보는 것이다.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마음과 생활이 결정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1) 진정한 회심은 영혼과 삶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하며 자기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자기의 행복을 두며,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전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고후 5:17). 회심한 사람은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의지와 결심, 새로운 슬픔, 욕구, 사랑, 기쁨 등을 가진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대화를 한다. 그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세상은 이제 그에게 헛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전에는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옥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곳 정도라면

생각되었던 천국이 이제는 자신의 집이요, 유일한 소망과 안식의 장소로 여겨진다. 전에는 사람들을 죄짓지 않도록 위협하기 위한 무서운 곳 정도로 생각했던 지옥이 이제는 실제의 비참한 곳으로서 위협을 무릅쓰거나 농담거리로 삼을만한 곳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전에 그의 친구들의 죄악들을 비웃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죄와 비참을 인해서 통곡할 준비가 되어 있다(시 15:4, 16:3; 빌 3:18).

(2) 회심은 진로 수정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이다

그의 생각 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있으며 그의 노력 속에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전에는 그의 탐욕적 자아가 폭염였고 그의 쾌락과 세속적 이익과 명예가 그의 삶의 방

기쁘시게 하려 하였으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육체와 자아가 그렇게 과도한 쾌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큰 변화이다.

(3) 여러분은 참된 회심을 경험했는가?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는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은 감히 믿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믿

것보다 천 배나 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회심에 대한 진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이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이런 일을 믿고,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두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과 이기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것이 진실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쁜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지옥을 볼 수 있을 만큼 열리진다면, 여러분은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소름 끼치는 고통을 지르면서 슬

“회심한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는다면, 어떻게 하여 여러분은 그토록 비회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회심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영혼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거듭났으며 새롭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가깝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시체는 곧 흠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곧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곧바로 딴 세상 사람들이 되어 지금의 존재와는 다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잠시 동안만 더 이 집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시간도 부활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의 그 날에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상상하는

피우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부자가 저주받은 지옥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일종의 보는 것이며, 영혼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방법으로 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시지는 않으실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정해놓은 방식을 바꾸지도 않으실 것이다.

(다음 호에는 자신이 회심했는지를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yoonsuklee@hotmail.com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종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챗GPT 인공지능 시대, 다음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도 정치계, 금융계, 교육계 등이 챗GPT를 적극 도입하도록 노선을 정하고 있어, 이제 AI가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공존할 거란 전망입니다.

챗GPT를 가능하게 한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에게 양날의 검으로 평가됩니다. 몰려서지도, 막을 수도 없는 AI기술이 우리와 자녀의 미래를 과연 행복하게 만들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차츰차츰 무너뜨릴지가 관건인 셈이죠.

지난 40여년간 교육의 흐름을 연구하며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필자로서는, 챗GPT로 서막이 열린 AI시대야말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성품’이 인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품을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닮아 따라가는 살아야말로 AI가 복제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이자, 따라 할 수 없는 선한 경쟁력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 뛰어난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 삶의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에 ‘성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수준 높은 창작물을 감히 누가 흉내 낼 수 있을까요? 온갖 독창성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자 바로,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결과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을 그대로 닮아 온 땅을 다스리며 존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분을 닮아 창조된 우리 성품이 세상의 그릇된 영향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흉내 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보다 큰 비극이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격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는 원망을 하고, 타인들과의 관계조차 막혀서 서로 미워하며 답을 쌓고 삽니다. 고독한 관계 속에서 AI에 의존한 채 고립된 삶을 자처합니다. 주고받는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극적인 관계 맺기가 미덕이 되었습니니다. 서로 적게 느끼고, 적게 관여하고, 적게 경험하며 살아가려는 이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내면의 고독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괴로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자의 창조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교육입니다.

성품교육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며, 이 과업이 성취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 즉 자아실현의 욕구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AI시대 현대인들의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이사야 43:4)라는 성경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기뻐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인 나의 성품이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통로가 될 때 나는 비로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AI시대를 넘어서 이기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하드 타입에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신앙생활인 듯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고 가시는 전능한 사랑꾼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한복음 13:1)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안고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재의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오래 가는 관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놓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려는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그럴 힘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안고 가다가도 힘이 들면 놓아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놓아진 사람은 일생의 정신적 실제적 고통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변화무쌍한 이민 교회 목회자이기에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던 교우들이 너무 쉽게 그 자리를 팽개치고 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쉽게 놓아 버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놓아진 사람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불행을 곱씹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허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안고 가는 교인이 얼마나 좋은 교인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희망하기도 하는 저의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소중함을 위임 받은 작은 목자이지만 그 소중한 교인들을 끝까지 안고 가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슬며시 놓아 버린 비겁한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며칠 전 새벽 큐티를 한 성경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은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인들이 목사의 교인이 아니고 목사가 제 마음대로 다스릴 교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교인들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그머니 놓아 버린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반청지기적인지를 깨달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반면, 목회에 유익한 교인을 함께 가려고 발버둥을 치던 초라한 목사의 모습도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성도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놓아 버리지 아니하고 안고 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디모데전서 4:4-5)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잘 품고 안고 가면 나중에 유익한 협력자가 됩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의 수레가 되어 가득한 축복을 실어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놓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나아갑시다. cyd777@hotmail.com

교회 출석 감소와 절망사 증가

(1면에서 계속) 이에 반해, 50세 미만의 성인, 대학 학위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 흑인 개신교인, 백인 주류 개신교인의 출석률은 매우 크게 줄었다. 중요한 이유: 종교 집회 참석을 일반적 의미의 “신”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는 없다. 하물며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지표는 더더욱 아니다. 역사를 보면 예배 참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진정한 충성도는 처절할 정도로 낮았던 때가 많았다. 따라서 이 수치를 근거로 건전한 믿음의 긍정적 신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률 감소는 인구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한층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 하나가 이번 주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 나왔다. 종교 집회 참여 감소와 “절망사”의 증가를 연결한 내용이다. “절망사”는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자 앤 케이스 (Anne Case)와 앵거스 디튼 (Angus Deaton)이 만든 용어이다. 이 두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미국인 기대 수명 감소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중년의 비-히스패닉계 백인 남성과 여성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가 약물 과다 복용, 자살 및 알코올

성 간 질환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비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로 인한 사망이 56퍼센트에서 387퍼센트로 증가했다고 데이비드 인트로카소 (David Introcaso)가 지적하는데, 그 숫자는 연간 평균 7만 명에 이른다. 케이스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좋은 직업,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역 사회에 내는 목소리 등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던 모든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둥도 확실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훨씬 더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종교 행사 참여의 감소가 절망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인은 종종 간과된다. 그렇지만 NBER 연구자들은 “모든 주에 걸쳐서 종교성 (religiosity)과 절망사 사이에 있는 강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종교 행사 참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에서는 198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절망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교성의 쇠퇴와 절망사의 증가는 모두 다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물론 또 다른 세 번째 요인이 두 가지 현상을 다 유발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종교성의 감소가 절망사 증가의 주요 원인 내지 중

요한 기여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청교도 법 (Blue law) 폐지도 비슷한 효과를 냈다. “청교도 법”은 일요일 또는 종교적 휴일에 유희 및 상업 활동(예: 주류 판매)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지역 또는 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법은 미국 독립 이전 식민지 시대부터 시행되었지만, 1960년대 초부터 점차 폐지되기 시작했다. NBER 논문은 청교도 법 폐지로 종교 출석률이 다소 감소했고 (주간 출석률 5-10% 포인트), 절망사가 약간 증가했음(10만 명당 2명)을 보여준다. 이 정도의 사망률 증가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와 비슷하다. 종교 집회 참석자의 감소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누구나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이다. 이견 비단 교회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적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시민제도도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다 선택 사항이 되는 순간, 편안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진다. 2010년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 (Jason Aldean)은 “Church Pew or Bar Stool”(교회 장의자 또는 술집 의자)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는 “교회 의자 또는 술집 의자 두 가지밖에 없는 동네”에 갇혀 있는 신세를 불평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구원 방법은 위스키 또는 성경, 술잔 또는 부흥뿐.” 조악한 이분법에 불과한 이런 현실이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직면하는 선택이 되고 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희망을 찾거나 술과 마약이라는 파멸적 자가 치료로 유도하는 외로운 절망에 빠지거나, 많은 이들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이다. 교회 출석을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를 멀리하는 그룹, 즉 청년, 남성, 독신자, 그리고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한 인구 통계에 속한 많은 사람은 아예 자발적으로 교회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눅 19:10)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절망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생명과 소망의 유일한 근원이 예수님이며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1(수)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목) 오전 서울통합센터 UBN 국제재단 (이사장 정해정)
3(금) 오후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4(토) 오후 서울 문화예술 올림피아드강당 주최:(사)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장석 목사) 010-3927-0691
5(주)저녁~(8)수 무안 총만교회 (안창남 목사) 010-2471-6266
9(목) 오전 오후 철원 성소기도원 (원장 박정민 목사) 010-9261-2922
10(금) 오후 서울 더기쁨교회 (오세영 목사)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남윤정 목사) 010-3234-1613
주최: 한국부흥성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공주 푸른초성교회 (김동영 목사) 010-3770-5279
제 228차 해외성회 (228th Overseas Assembly)
13(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회신학 (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14(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사랑의교회 (정스대만 선교사)
15(수) 일본 (JAPAN) 동경 Carmel 기도원 (원장 김택일 목사)
16(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전도 집회 및 특별행사 (일본 선교회) 귀국
20(월) 오후 일산 예수찬양교회 (전옥영 목사) 010-2773-2365
21(화) 오전 인천 행복오기교회 (최기석 목사) 010-5278-0065
저녁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2(수) 오후 포천 엘리자기도원 (원장 강일분 목사) 010-3247-9392
주최: 한국기독교 연합부흥성회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3(목) 저녁 서울 위대한국교회 (임희향 목사) 010-6201-8374
24(금)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중섭)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5(토)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회관
27(월)~29(수) 포항 생물교회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30(목)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1(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원로목사회 (회장 피종진 목사) 거성교회 (노원수 목사) 010-3162-868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전통과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 and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동부교계 기사판

가스펠장로교회, 튀르키예 돕기 자선음악회(NY)
 가스펠장로교회(담임 신우철 목사)는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달란트로 기여하는 튀르키예 돕기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917-683-5045

무료 유방암 검진 조영술 버스, 플러싱운영(NY)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유방암 조영술버스가 다음달인 3월 17일(금) 퀸즈 플러싱에 온다. 유방암 조영술버스는 3월 17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실 앞 주차공간에서 무료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다. (검진주소) 135-27 38Ave., Flushing, NY
 ▲문의: 718-888-8747 (샌드라 황 의원실, 한국어 통역 가능)

퀸즈한인교회, 이재철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NY)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3월 10일(금)~3월 12일(주일)에 이재철 목사(100주년 기념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자기 점검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부흥 사경회를 다음과 같이 연다. 3/10(금) 8pm "그대는 어떤 세례교인?" (행 2:36-42) 3/11(토) 7pm "그대가 주시하는 것은?" (막 3:1-6) 3/12(주일) 11am "그대의 구브로는?" (행 27:1-4)
 ▲문의: 퀸즈한인교회 718-672-1150

뉴저지초대교회, 장애 이해하기 워크샵(NJ)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장애 이해하기 워크샵을 3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 HF 예배실에서 연다. 대상: 제자반, HF 신입교사, 타교회 성도, 장애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등록: 3월 6일(월) 마감
 ▲문의: 뉴저지초대교회 201-767-0400

영생장로교회, 영생시니어학교(PA)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2023 영생시니어학교를 3월 14일(화) 부터 시작한다. 기간: 오전 9시~오후 1시 45분 (8주간) 등록비: 개인 30불/부부 50불
 ▲문의: 박혜란 권사 215-499-0320, 이재영 집사 484-560-1310

벤엘교회, 2023 선교부흥회 및 세미나(VA)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2023 선교부흥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주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시편 62:2) 일시: 3월 10일(금)-3월 12일(주일) 오후 7:30분, 주일 각 예배시간 장소: 분당 강사: 마뉴엘 라우흐홀츠교수(트리니티 신학교 선교학 교수) 세미나는 3월 11일 (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본교회 비전채플에서 '1)여성과 선교, 2)성경적 비즈니스 경영, 3)그리스도인과 사회봉사'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벤엘교회 410-461-1235



교회설립 49주년 기념 예배 후 찬양팀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예배 드려

"너희의 희년이니 (Shall Be a Jubilee For You)"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설립 49주년 기념예배를 2월 26일(주일) 오후 4시에 드렸다. 김성국牧사는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각 회중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G2G 어린이 합창단의 서창, 정성호 장로의 기도, 이광윤 집사의 성경봉독, 찬양대가 "길을 만드시는 분"을 찬양했으며 KAPC 총회장 홍규표 목사가 반석에서 나온 물(출애굽기 17:1-7)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오기 마련이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고난의 때마다 누군가를 계속 원망한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리아싱어즈의 화답찬양, 이무근 장로와 임정 장로의 은퇴식 및 담

사, 하수열, 박연자 권사에게 명예권사추대패 수여, 정길표 장로와 정경애 권사를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규성 원로장로, 허경화 원로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KAPC 총무 김성일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광고 후 '너희의 희년이니(Shall be a Jubilee for You)'라는 주제의 영상과 함께 김성국 목사와 다민족(영어예배부, 중국어예배부, 러시아어예배부) 사역자들이 다함께 희년 선포식에 동참했다. 특별 찬양과 희년의 축제 선포를 통해 퀸즈장로교회 찬양팀인 주빌리, 두드림, 주향, 하늘소리, 하랑예찬, 다민족찬양팀과 리빙리버가 함께하며 온 성도들이 다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다. 모든 순서는 축제 선포 후 담임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퀸즈장로교회는 희년 50주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할 것을 선포했으며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 "The Way"를 10월 29일(주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Tilles Center에서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부활절 앞두고 세 차례 기도회 진행 예정

"교만·탐욕 무너뜨린 예수십자가 의미 깊이 묵상할 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전 세계 기독교 최대명절인 부활절을 앞두고, 총 세 차례 걸쳐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마련하고, 흑암의 사망권세를 깨뜨린 예수부활의 의미를 회원교회와 함께 나누는다고 전했다. 뉴욕교협은 최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준비위원회장 권캐더린 목사를 비록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뉴욕시를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오전 6시 부활절새벽 연합예배를 권역별로 함께 드리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앞두고 뉴욕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세 차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번 준비기도회는 부활주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회개와 참회의 기간으로 삼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권캐더린 목사는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뉴욕지역을 16개 지역으로 나눠 뉴욕교협 회원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팬데믹상황이 거의 끝난 올해에는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팬데믹이전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부활절연합 새벽기도회는 1차 기도 모임을 다음 달인 3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에 뉴욕양 무리장로교회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3월 20일(월), 4월 3일(월)에 연이어 진행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회장 이준성 목사가 새벽연합예배준비기도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회자를 위한 로고스바이블 워킹 강의의를 맡은 조재원 목사

뉴저지교협 주최 '목회자를 위한 로고스바이블 워킹'

로고스바이블을 통한 설교 준비 및 목회 활용 방안

뉴저지한인교협(회장 박근재 목사)이 주최하고, 교육분과(최다니엘 사관)가 주관한 '로고스바이블 워킹'이 2월 21일 티넥에 위치한 AWCA에서 개강했다. 목회자에게 필수적인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와 설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로고스바이블'을 몇 십분 동안 목회에 사용하며 연구해 온 조재원 목사(에셀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개강한 첫 강의였다. 비록 소수의 수강생이 참석

했지만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그 동안 '로고스바이블'을 구입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차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의였다고 교협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8주간(4월 11일 까지/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계속될 강의에는 '로고스바이블'을 구입한 분 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계속적인 참여가 무료로 가능하다. ▲문의: 신철웅 목사 201-388-5813



설립 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 새로움교회 설립 및 임직식 열려

개척 준비 4년 만에 마침내 설립 예배 드려

뉴저지 새로움교회(담임 이영만 목사)는 설립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임직식이 가졌다. 이영만 담임목사와 박성양 동사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개척을 준비한지 4년 만인 2월 26일(주일)에 마침내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다. 예배는 이영만 목사와 박성양 목사의 사회, 박상천 목사(소망장로교회)의 기도, 방지각 목사(효신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희권 목사(국제복음신학대학원장)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이영만 담임목사의 인도로 2인(조수아 박, 최준희) 장로 장립, 그리고 3인(이정은, 케이 서, 이수정) 권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승중 목사(KWMC 대표의장)의 권면, 김득해 총장(국제복음신학대학교)과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의 축사, 윤희린 선생의 축사가 진행됐다. 박성양 동사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에, 특별히 "선교와 구

제는 파트너 개념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임직자들이 준비한 후 원금을 소속인 사역을 하는 더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에게 전달했으며, 방지각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새로움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보다는 이민 사회와 동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목회사역은 팀목회로 각자가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소개했는데 두 목사는 극동포럼 뉴욕지부 사역을 동역해 왔다. 또 "교회는 교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교인들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인도한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과 불신자를 돌보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며 때로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교회의 방향성을 밝혔다. (정리: 김재상 기자)

달란트로 기여하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찬양과 음악을 통한 성금 모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3월 5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지진이 일어나고 사망자는 5만여명에 이르는 큰 피해가 확인되자 뉴욕교계 단체들이 모금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찬양과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가슴이 따뜻한 개인과 개교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신우철 목사는 가스펠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예장백석 미주 동부노회 노회장이다. 모금 음악회에서 원로 방지각 목사가 설교를 한다. 또 KCS민요합창단, 피리연주 변시환 장로(가스펠교회), 대금연주 윤태석 선생, 테너 김영환 전도사, 피포먼스 김성순 장로(효신교회),



트럼펫 연주 송우룡 목사, 색소폰 연주 이인철 목사, 특별찬송 루이스 장로(가스펠교회), 클라리넷 합주 신우철 목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후원 및 문의: 917-683-5045

뉴욕우리교회, 3.1운동 기념 예배 및 항일 애국지사 묘지 방문 기념식

다음 세대들에게 뿌리 깊은 정체성 확립을 돕고, 자긍심 심어주기 위해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는 2월 26일에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 주일예배 및 기념식을 가졌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조원태 담임목사는 "기념식의 의미는 한국의 출애굽 역사를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며, 다음세대들에게 뿌리깊은 정체성 확립을 도와 주어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배에서 제1회 독일민족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일운동에 이화학당 교사로써 참여했던 김독실 할머니를 독일유공자로 추서했고 할머니의 손자이자 뉴욕우리교회 성도인 김건국 집사가 받는 독일유공자금 장학회를 헌금하여 독일민족 장학회를 설립하고 미주의 다음세대들에게 독일민족 글짓기 그림대회를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주일예배 후에는 교회근처에



있는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애국지사 황기환 묘지를 방문해 80여명의 다음세대들과 삼일절 기념식을 가졌다. 조원태 목사는 "34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처럼 100년이

넘은 삼일영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교과서임을 체험하는 기회를 나누었다"고 감격해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밀알선교단, 신임이사장에 이영선 목사

“밀알 2기 리더십이 잘 정착하도록 울타리 될 것”

미주밀알선교단이 2023년 새로 구성된 총단위원회와 함께 미주밀알이사회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3일(목), 미주복음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린 미주밀알선교단 이사회 언론사 간담회에서는 이영선 이사장(미주복음방송 사장)과 권 준 부이사장(시애틀형제교회 담임)이 위촉되는 한편, 총단위원회 임원진으로는 총단장에 최재후 목사(애틀타밀알), 부총단장에 장영준 목사(시애틀 밀알), 사무국장에 김정기 목사(북가주밀알)가 조직되어 있다.



밀알 선교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이영선 목사(중앙), 권 준 부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신임임원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영선 목사는 현재 미주복음방송 사장, 세계한인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그룹 이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권준 목사는 서북미 최대의 한인 교회인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시애틀밀알선교단과의 협력 및 교회 내 장애인 부서를 통해 활발히 장애인 사역을 섬겨오고 있다.

이영선 이사장은 “지난 1994년 평신도 후원이사로 뉴저지 밀알선교단을 도우며 밀알사역을 시작했다”고 “2000년부터 남가주밀알단장으로 사역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밀알의 역사가 45년을 향해가

고 있다. 밀알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해오던 1기 사역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새 리더십에 1기 사역자는 없으며 이는 밀알이 새로운 사역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알의 새이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2기 리더

십이 잘 정착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준 부이사장은 “밀알은 시애틀에도 지단이 있어서 함께 동역했다”며 “장애인이란 특별한 삶을 사는 자들을 볼 때 어떤 모양이든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권 부이사장은 “부이사장으로 밀알 사역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교회 차원에서 밀알을 어떻게 섬기고 동역하는지 담임목사로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사역이 새롭게 이양되고 바뀌는 시기가 됐다. 미주지역에 1세대와 2세대 중간에서 장애선교사역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미주지역에 맞게 장애사역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부이사장직으로서 밀알을 섬기면서 앞으로 새로운 밀알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박준호 기자>



이우주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새 담임목사가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은퇴 감사예배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는 창립 19주년 기념 2대 이우주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은퇴 감사예배를 지난 2월 19일(주일)에 드렸다. 이우주 목사는 “하나님께서 귀한 안디옥 교회가 2대 담임목사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하며 “안디옥 교회가 이름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 어둠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위에 반석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른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사랑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바른 종이 되기를 기도해주시 바란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현 목사(KAPC LA노회장, 노스리지 만남의 교회) 인도로 시작된 이우주 담임목사 취임식은 취임서약, 서약의 불변을 위한 기도, 선포, 김동현 목사(KAPC LA노회 시찰장, 라스베가스 복된교회)가 축사 및 권면했다. 이어 담임목사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안디옥교회 장로부부 중창단이 특송을 했다. 이우주 목사 인도로 열린 장로 은퇴식은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장로교회)가 축사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축사 및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패를 증정하고 장로 은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정현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산호 목사(KAPC 노회 서기, 라스베가스 행복한 교회)가 기도했으며 방초희 집사가 조재현 형제의 풀꽃 연주에 맞춰 축가를 불렀다. 이어 이정현 목사가 ‘신앙인의 가져야 할 진가(출애굽기 17: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삼일절 104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삼일절 104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가져

“한인민사회에 삼일만세운동의 정신이 온전히 이어지길”

삼일절 104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대회장 유근희 목사)이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공동주관으로 2월 26일(주일) 오후 4시30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김준 목사 찬양인도와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이사장)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영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총무)가 기도했으며 정종훈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 성경봉독 후, 임보희 전도사(나성서남교회 지휘자)가 특별찬양했다. 이날 유근희 목사(전 북미주 아시안, 태평양계 제자회 실행목사)가 “진정한 애국가(마 5:10)”라는 제목으로 “삼일운동은 범 민족적인 독립 운동이었기에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발생했다. 독립운동 대 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인 것을 보면 당시 기독교가 매우 주도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정신은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곳 미주지역에서 자라나는 우

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인민사회에 삼일만세운동의 정신이 온전히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서사라 목사의 합심기도 시간과 주일염교수(베데스다대학교)가 바이올린 특별연주를 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중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어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사회로 열린 2부 기념식은 가수단 입장, 국민의례, 독선언문 낭독, 삼일절노래 제창으로 이어졌고 김정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환영인사, 임성필 목사(풍성한 교회)의 특송과 임병식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달영 목사(LA카운티교협 중경회장), 이호우 목사(OC교회 중경회장), 그레이스 송 회장(미주3.1여성동지회)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가 만세삼창을 인도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신임 임원회 열어

전현미 회장 연임, 부회장 랜디킴, 강민석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지난 2월 19일(주일) 오후 5시 풀러턴에 있는 풀하우스 중식당에서 신임 임원회를 열고 전현미 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전현미 회장은 “올해 사업으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이라는 주제로 기금모금 콘서트를 열고 학생찬양경연대회, CCM 찬양 음악회, 창작성가제, ‘입술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성악 분과음악회, 찬양합창제를 여는 한편 ‘Instruments of Zion’이란 주제로 기악 음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남가주에 속한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197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초교과 연합 기관으로서 이곳 남가주 교회 음악인들의 교류와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남가주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 지난 52년간 활동해 왔다. 지난 2년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새

해부터는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임원들을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총회를 열지 못해 전현미 회장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새로운 임원들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전현미(동양선교교회), △부회장 랜디킴(로렐장로교회), △부회장 강민석(감사한인교회), △총무 김정민(은혜한인교회), △회계 겸 서기 김혜정(남가주사랑의교회), △합창분과장 김재연(늘푸른선교교회), △작곡분과장 김지민(민음의교회), △기악분과장 황여주(감사한인교회), △성악분과장 백동휘(기쁜우리교회), △CCM분과장 조영석(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학성분과장 오윤정(충현선교교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연락처: (310)381-9835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서부교계 게시판

TEE 양육 과정, 풍요로운 삶 열린다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TEE 양육 과정, ‘풍요로운 삶 zoom class meeting’이 열린다. 여승훈 목사(C&MA 한인 총회, 목회자 및 선교사 TEE 양육 디렉터)가 강사로 서는 본 zoom 클래스는 3월20일(월) 저녁 6시(LA 시간)와 3월21일(화) 오후 3시(LA 시간)에 각각 시작되어 9주 동안 이어진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교재값은 12불.(우편 발송료 별도) 매주 인도자용 PDF 파일이 제공된다. ▲문의: newsong6364@gmail.com 또는 카톡 아이디 : newsong6364

김양재 목사와 함께하는 제2회 THINK 목회세미나

김양재 목사와 함께하는 제2회 THINK 목회세미나가 3월9일(목)부터 11일(토)까지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담임목사와 동반하는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지도자이며 회비는 \$50이다. 세미나 일정은 9일(목)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20분, 10일(금)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20분,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이다. ▲문의: (818)834-7000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미주대회

백석총회(대회장 장종현 목사) 설립 45주년 기념 미주대회가 3월6일(월)부터 8일(수)까지 더블트리 힐튼호텔 부에나파크(7000 Beach Blvd, Buena Park, CA)에서 열린다. ▲문의: (213)370-8448

OC 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OC 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조찬기도회가 3월4일(토) 오전 8시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OC교계연합회기도회로 열린다. ▲문의: (562)399-2022

KPCAL나성영락교회 창립50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은퇴식

KPCAL나성영락교회(임시당회장 강진웅 목사) 창립50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은퇴식 장로 은퇴식이 3월5일(주일) 오후 3시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 3300 W. Adams Blvd, LA, CA)에서 열린다. ▲문의: (213)365-8880



토렌스조은교회 부흥회에서 권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렌스조은교회 부흥회 열어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의식을 놓쳐서는 안돼”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부흥회가 2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경배와찬양과 김우준 목사 사회로 시작된 26일(주일) 오전 11시30분 예배에서 권준 목사는 ‘교회, 은혜위에 서자!(마 20: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준 목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에 있다”며 “본문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불공평한 나라이다.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

다. 나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다. 둘째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다.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가족의식이 없으니 비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의식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토렌스조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감사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부흥회는 토렌스조은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 2월 한달간 진행한 투게더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박준호 기자>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 말씀치유연합집회

“삶의 여정은 평지가 아닌 산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미주 남침례회 한인총회 하와이 지방회가 주최한 하와이 이민 120주년 말씀 치유 연합 집회가 ‘사명이 상처가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인침례교회(담임 김형기 목사)에서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개최됐다. 19일(주일) 오후 김형기 목사의 기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집회는 황상숙 권사가 기도했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6-15)’라는 제목으로 고승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고승희 목사는 “산지는 쉬운 곳이 아니며 어려운 곳이자 힘든 상황들”이라 설명했다. 고 목사는 “본문에서 갈

렘은 산지를 향해 올라갔고 산지를 정복했다. 그리고 갈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평지가 아닌 산지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죄인된 자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산지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고승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신임 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4월까지 이스라엘항공권 매진” 성지순례 43배 ‘경중’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사무소...여행 목적 중 80%가 성지순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중이다. 엔데믹으로 전환된 올해엔 2022년보다 더 많은 성지순례 관광객이 이스라엘을 찾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관광청은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목적은 대개 성지순례에 있다.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행을 결심한 한국인 가운데 80%가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는다. 정부가 지난해 초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우리나라 교인들도 하나둘 성지로 떠나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별 순례객 수를 비교한 이스라엘관광청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2022년 2월엔 2019년 2월 대비 여행객 감소 비율이 99%에 달했지만, 지난달엔 75%까지 그 비율을 좁히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은 4300명으로, 2022년 1월(100명)과 비교하

면 43배 불어난 셈이다. 엔데믹을 맞아 이스라엘로 향하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으나 국가별 상황은 제각각이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찾은 국가 순위는 앞치락뒤치락 요동쳤다. 지난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찾은 아시아 국가는 인도(2만6900명)였다. 2019년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방문한 중국(12만5200명)은 8위로 밀려났고, 2위였던 우리나라는 6위로 밀려났다. 다만 인구 대비 관광객 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스라엘로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코로나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늘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조유나 이스라엘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유 시간이 비교적 짧은 주요 항공사만 2개가 늘었다. 그런데도 오는 3-4월 이스라엘 항공편은 거의 매진됐다”며 “코로나 확산 전 모습을 100% 되찾긴 벅겁더라도 2019년 방문객 절반 정도인 3만 명이상의 한국인이 이스라엘을 찾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살유가족들이 아픔 털어놓을 수 있는 문화 형성돼야”

라이프호프 28일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자살유가족 추성윤씨는 8개월 전 어느 날 새벽에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한 경찰이 건넨 사진 한 장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추씨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했지만, 평소 옆에서 관심 가져준 부목사님 덕분에 잘 극복해내고 있다”며 “교회 내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라이프호프·대표 조성돈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특수청소년 업체 예비그린 김현섭 대표와 3명의 자살유가족이 특강과 대담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자살 이후, 삶의 흔적”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면서 “교회에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연락이 끊긴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와 주변 성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사소한

관심이 자살 예방에 중요하다. 이날 대담에서는 기독교인 자살유가족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먼저 떠나보낸 심소영씨는 자살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평소 독실한 신자였던 심씨는 “아픔을 겪었을 당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교회에서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지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내 자살을 외면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유가족들이 아픔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5명의 신앙 이사가 임명됐다. 조성돈 대표는 “라이프호프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세상 속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며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생명의 문화가 꽃피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걸음을 걸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2년 뒤 초고령사회...노인을 사역 주체로

예장통합 ‘초고령사회 노인목회의 이론과 실제’



2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 노인목회의 이론과 실제’ 세미나를 열고 노인 목회 방향성을 모색했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으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국교회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개신교인

의 23%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2021) 발제를 맡은 손의성 배재대 교수는 “한국교회는 노인 세대도 소외감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 수 있는 ‘고령 친화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미래목회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세대 절반은 직분에서 은퇴한 후에도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며 “교회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강 수준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노인 세대의 특성과 욕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에 뒤처지 않는 에이징 파워(aging power)를 가지고 교회와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하자”고 권면했다.

은퇴목회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나왔다. 예장통합 경기노회는 2013년 ‘은퇴 목사 노후 장기대책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은퇴목회자가 지역교회에서 설교하며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강헌성 위원장은 “은퇴목회자는 대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좋고, 교회는 연륜 있는 선배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재룡 유성구노인복지관장은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에 관해 설명하고 “교회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노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양육 간에 건강한 노인 세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JMS 교주 정명석’ 넷플릭스 단독 다큐 방영 불발되나

17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세계적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단독으로 방송하는 이단 교주 다큐멘터리가 제동을 걸었다. 공개 하루를 앞두고 방송 여부가 결정되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방송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8일 오전 JMS와 정명석 JMS 총재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MBC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달아 단독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3일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JMS와 MBC 측이 각각 구두 변론이 마친 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대로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MBC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달아 단독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3일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JMS와 MBC 측이 각각 구두 변론이 마친 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결과는 방송 예정일 하루 전인 오는 2일 공개된다. 결과에 따라 방송이 나갈지가 결정된다. JMS는 지난 17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 한 회당 5억여원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방송은 모두 8부작으로 한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를 다뤘다.

JMS측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MBC 측은 “JMS 측에 해명을 듣기 위해 1년 동안 반론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방송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정명석 JMS 총재는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적인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한국교회총연합, 광화문부터 서울광장까지 1만명 참여하는 첫 부활절 퍼레이드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닌 한국사회를 향한 대중문화 축제로 기획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부활절퍼레이드조직위원회(공동대회장 권순웅 오정현 이순창 이영훈 이철 목사·감경철 장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3부활절퍼레이드’는 부활절인 다음 달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1.7km를 행진하는 기독교 문화 행사로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렬의 맨 앞은 양각 나팔수들이 이끈

다. 그 뒤를 연악계와 부활 음악을 연주하는 마칭밴드, 한교총 소속 교단장 등이 따른다. 전체 행렬은 구약과 신약, 근·현대와 다음세대를 상징하는 이들의 행진으로 구성된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독교는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전통이 있다”면서 “부활절퍼레이드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철 감독회장도 “이번 퍼레이드는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향한 대중문화 축제로 기획됐다”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 기획됐다”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무대회장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행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며 “부활절 퍼레이드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낳는 기적의 행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도, 세례, 양육, 결연의 군선교 선순환 회복” ...군선교연합회 총회

CCC, KWMA, ROTC 등과 네트워크 구축



“독립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 전통따라 평화의 길잡이 될 것”

평통연대 등 교계 단체 3·1절 성명

제 104주년 3·1절을 맞아 주요 교계 단체들이 순국선열의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평화통일연대(평통연대·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28일 서울 용산구 카페효리에서 3·1절 성명을 발표했다. 평통연대는 “100여년 전 우리 민족이 온 힘을 다해 외친 ‘독립’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평화’라며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

대도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MBC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달아 단독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3일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JMS와 MBC 측이 각각 구두 변론이 마친 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넷플릭스 측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팬데믹 기간 동안 약화된 군선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도·세례·양육·결연 등으로 이어지는 선교 선순환을 회복시키는 한편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학군단(ROTC)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군선교연합회 전국지회를 통해 선교 동참교회를 확보하고 교단별 ‘군선교의 날’ 및 ‘군선교 주일’을 제정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순환 28 교회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함께 간다

지난 2월 8일 캔터키 윌모어에 있는 애즈베리대학의 주요 채플 시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영적각성운동의 소식은 우리에게 간절할 마음을 주고 새로운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촉발제가 되었다. 애즈베리대학의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방송되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할 영적 갈망을 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지역 캠퍼스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흥운동과 선교 운동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서로 얽혀 있다. 부흥은 신자들 사이에서 영적 각성과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는 시기로 강력한 복음증거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로 이어졌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은 1730년대에서 1740년대에 일어났다. 식민지 미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높아졌고 새로운 선교 단체가 설립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이자 부흥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설교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은 대각성운동의 주요 촉매제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성공회의 조지 휫필드는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명으로서 미국 식민지 전역을 다니며 많은 군중에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쓰임 받았다.

제2차 대각성운동은 1790년대에서 1840년대까지 일어났는데 미국의 성서공회, 미국전도지협회, 미국가정선교회 등의 설립을 비롯하여 단체들이 설립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운동에는 장로교 목사인 찰스 피니는 개인적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개혁과 노예제 폐지 메시지를 전하였다. 또한 피터 카트라이트는 감리교 설교자로서 중서부 전역을 여행하며 많은 군중에게 설교하고 그의 도전으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특히 이 부흥운동은 기도를 강조하였는데 신자들이 기도 모임에 함께 모여 자신의 삶과 선교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미국과 전

연합으로 설립되고, 1890년에는 한국에서는 기독교서회등을 설립하고 성경공부, 청소년 집회등으로 많이 섬긴 TEA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이 설립되었다.

도왔다. 기도운동이 역시 이 부흥운동의 특징인데 신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 그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905-6년의 인도부흥운



1930년대의 동 아프리카에

어난 부흥운동은 오순절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파송되었고 이 운동은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거의 모든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영향을 받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자인 윌리엄 시모어는 아주사 거리 부흥의 핵심 인물인데 그는 성령세례와 방언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오순절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전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랭크 바틀먼은 미국인 전도자로서 광범위한 글을 써서 부흥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공헌을 하였다.

이는 새로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기존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회개와 쇠신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깊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구한다. 그 부흥운동의 결과는 항상 기도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이 모든 부흥운동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애즈베리대학에서 일어난 회개와 영적 갈망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듣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성경의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불을 지피신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모국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구한다. 젊은 세대의 선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선교후보생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본다. 모두가 포기한 듯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만 향기를 밖으로 풍겨낼 수 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언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겠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준비된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사모하며 새로운 선교 세력을 일으킬 주님을 기대한다. 오십 여년만에 다시 한번 강한 역사의 현장에 나도 함께 하길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시길 기도 드린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dr.yongcho@gmail.com

“부흥은 강력한 복음증거를 가지고 선교의 큰 물결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고 선교 활동의 큰 물결이 일어났다. 1810년에는 미국최초의 미국해외선교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816년에는 미국성서공회, 1865년에는 영국에서 Salvation Army가 설립되고, 1887년에는 우리에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으로 알려진 C&MA가 선교하는 교회들의

1904년부터 1905년에 이르는 웨일스 부흥운동은 에반 로버츠라는 부흥사가 중심이 되어 기도와 개인의 거룩함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설교는 많은 회심과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제시 펜 루이스는 영국의 전도자이며 작가인데 그녀의 영적 전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도록

동, 1903-7년 평양대부흥, 그리고 1908년 중국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확산되었다. 또한 웨일스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였고 웨일스의 언어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다.

1900년대에 들어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일

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사이에 기도, 성경,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였다. 이 부흥은 이 지역의 선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느꼈기 때문이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25강. 광야 38년, 늦봄 그리고 도피성 / (민수기 20-36장) (3)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발람의 꾀로(민 31:16)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합니다(민 25:1,2/ 계 2:14).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하시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민 25:3-5).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문에서 울 때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시므리가(민 25:14)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민 25:15)와 함께 회중의 눈앞에서 장막에 들어갑니다(민 25:6,8). 그러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민 25:7,8).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로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인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습니다(민 25:12,13). 그러나 이 직분의 언약은 사사 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삼상 2:29-31) 아비아달 제사장으

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됩니다(왕상 2:27). 하나님은 술사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미디안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민 25:16-18, 31:1-12).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민 26:2).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을 포함하여 계수를 하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하십니다(민

26:3-62). 그러나 이번 인구 계수에는 40여 년 전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않았습다.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세대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민 26:64,65). 하나님은 '축복'도(

레 26:3-13) '저주'도(레 26:14-33) 그리고 '회복'도(레 26:40-45)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도 ‘저주’도 ‘회복’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용될 '기업 분배법'을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 제정하시고(민 27:1-11)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십니

안수를 받고 세워집니다(민 27:15-23).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

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민 28:2)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화제 규례'(민 28:3-6) '전제 규례'(민

28:7,8) 그리고 '안식일 규례'(민 28:9,10), '초하루 규례'(민 28:11-15), '유월절 규례'(민 28:16-25), '칠칠절 규례'(민 28:26-31), '일곱째 날 초하루 규례'(민 29:1-6), '속죄일 규례'(민 29:7-11), '장막절 규례'(민 29:12-38)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

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민 29:40).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각종 법'과 '제사 의식'과 '절기' 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자의 규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 30:2) 하시고 출가하지 아니한 어린 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고(민 30:3-5)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민 30:6-8,11-15)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결혼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세상에 속해 세상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령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서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교회음악 이야기(29)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말로테의 주의기도

어느 5학년 남학생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방 앞을 지나다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도쿄 도쿄'를 반복하는 소리를 듣고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대답하기를 시험을 보는데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에 '도쿄'라고 틀리게 썼습니다. 이에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로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의 글은 노진준 목사가 쓴 '에베사색'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의 글입니다.

간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를 찾으려면 마 6:9-13절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며 바른 기도의 매뉴얼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 하는 영적인 삶의 핵심으로 이끌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제로 해서 미국의 작곡가 알버트 말로테(Albert Hay Malotte, 1895-1964)가 1934년 "주의 기도 (The Lord's Prayer)"라는 제목을 붙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구인 바리톤 요한 토마스(John Charles Thomas, 1891-1960)에게 곡을 주어서 1935년 녹음하여 성악 솔로로 라디오를 통해 처음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카를 데이스(Carl Deis, 1883-1960)가 오르간 반주에 합창곡으로 편곡해서 안팎으로 만들어 교회 성가합창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반부 하나님의 주권을 최대한 경외감을 갖고 표현하려고 서정적 멜로디와 아르페지오 반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어 한 박을 셋잇단음표로 리듬을 짚어 사용하므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죄사함을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가장 정점으로 몰아가는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고요하게 아멘으로 종결하며 이 모든 의미를 메아리로 계속 울려 여음을 남게 하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 오보에 악기의 튠에 맞추어 모든 악기들이 튠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악기들이 하나의 음정이 되게 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죄사함과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시선을 돌려 드리며 그 분께 집중하려는 작업입니다.

iyoon@wmu.edu

월 중보자가 됩시다 (삼하 20:14~22) 찬 452장

세바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선동하여 다윗을 배반하게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세바를 진압하라고 명령했고, 세바는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피신합니다. 요압은 아벨성을 멸절시키고 세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여 '세바만 죽여서 요압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아벨성을 구합니다.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아벨성과 요압 사이에 섭니다(삼하 20:14-22).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위함이 아니라 아벨성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둘 사이에 선 '중보자(Mediator)'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며, 동시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Intercessors)'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중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는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삼하 24:1~17) 찬 214장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성격은 '병력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지만, 요압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것을 내세워 인구조사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질년의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김',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은 백성의 숫

자는 칠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금하셨습니다(삼하 24:3). 하나님께서 병력조사를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병력이 생각보다 많으면 하나님을 떨치지 않게 되고, 병력이 생각보다 적으면 '적은 숫자'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원'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왕상 1:1) 찬 80장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읽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망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퇴장과 솔로몬의 등장입니다. <권력을 위한 암투>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왕상 1:1~4), 왕이 되고 싶은 왕자들 안에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그 이

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출애굽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룯기는 엘리멜렉의 죽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위대한 성군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낙심과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왕상 2:36~46) 찬 267장

시므이는 암살범의 반역 당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삼하 16:5-14).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부탁합니다(왕상 2:8).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시므이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왕상 2:36-38). 그러나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왕상 2:39-46).

우리고 시므이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예루살렘(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신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왕상 3:4~14) 찬 19장

솔로몬은 전쟁한 형님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도니야는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자신이 양보했다는 듯한 뉘앙스로 밧세바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왕상 2:15).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 정치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안정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왕상 3:1).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시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시며,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당부도 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일천번제는 '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고 드릴 예배는 일천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전이 됩시다 (왕상 6:37~38) 찬 435장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평소에도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나무를 가장 잘 베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한 지 480년 만이며,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후 4년 만입니다(왕상 6:1). 솔로몬은 다윗이 알려 준 성전의 설계도(대상 28:11~19)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째 2월(시브월)에 시작하여 11년째 8월에 끝났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왕상 6:37~38).

솔로몬은 다윗이 알려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왕상 6:38). 그 설계도가 기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고전 3:16).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살아가는) 성전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안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윗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서아시아 P국

▲ 종족명
K&P 종족

▲ 인구
K종족 약 25만 명, P종족 약 17만명

▲ 종교
힌두교, 기독교 소수

▲ 기타
문맹률 80% 이상

▲ 프로젝트 소개
1993년 신앙 번역이 시작되어 2000년경 완역됐다. 이 소개 후 구약 번역이 시작됐으나 짐채됐다 최근 다시 활성화되었다. 2030년 성경전서 완역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K종족과 P종족 두 언어가 80% 이상 유사하여 함께 번역하고 있으며, K종족 4명, P종족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일의 히브리어 수업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과 번역자의 원문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 성경 번역과 더불어 번역자들의 초점이 번역하며 부딪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도제목
1. 이들 두 언어에서 번역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종족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받는 번역이 되도록
2. 번역 과정 가운데 모든 팀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며, 번역을 마친 후에는 이들이 말씀 전파와 또 다른 번역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4.비혼(非婚)

비혼은 사회적 대세,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해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인률은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세대에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전통은 계속될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겐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선 결혼도 아니고, 미혼도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 비혼(非婚)족이 급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해 가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청년들의 실재입니다.

1. 미혼, 비혼, 독신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미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비혼), 이혼한 사람(독신=돌아온 싱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자로 구분하게 되면, 미혼(未婚)은 Un-Married이고, 비혼(非婚)은 Non-Married이고, 독신(獨身)은 Singl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 비혼, 독신 등 혼자 사는 혼족(婚族)의 형태로 볼 때는 크게 독신이라고 말할 순 있지만, 내용적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비혼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미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혼은 향후 결혼을 할 여지가 있지만, 비혼은 일생동안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서 현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물론 배우자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 등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쓰이는 표현으로 비유하면, 미혼은 재고품, 불혼은 유통기간 지난 불매품, 비혼은 비매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혼의 이유

사회적으로 비혼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결혼시기를 놓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결혼비용으로 소모된 돈으로 차라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결혼비용, 자유로운 삶의 포기, 출산육아의 부담 등의 이유로 비혼을 선택한다고 하고, 여성들은 자유로운 삶의 포기, 새로운 가족(시댁)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비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적인 가부장적 결혼제도와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되는 것을 꺼려하여 비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으로 고학력 실업자가 판을 치고 있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내 집 마련과 대인관계까지 포기한 오포 세대를 거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철포 세대가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과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 부재가 타의에 의하여 비혼으로 선택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비혼문화

비혼세대의 등장은 동거나 입양, 이민,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또한 비혼족이 늘면서 비혼문화를 돕는 단체가 생기고, 새로운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혼자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사진을 찍는 '싱글 웨딩', 결혼하지 않은 이모나 삼촌이 조카

양육을 지원한다고 해서 '골드이모', '골드 삼촌', 조카에게 애정을 쏟는 '조카바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고, 비혼족 증가에 따라 월세, 홈테리어, 소형차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 할 의사가 없는 비혼족이 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비혼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축의금 대신 '비혼금'을 받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만의 축의금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축의금이라는게 결혼비용을 품앗이하는 것이고,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비혼식은 잘못된 축의금 문화가 낳은 부산물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비혼식 때 축의금을 돌려받는 것이 낯설지는 않지만, 합리적이라고도 합니다.

4. 비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은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신적 결혼제도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한 후, 가정을 이룬 인간들에게 최초로 5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창 1:28)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이며, 축복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숭상 없는 영적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한 몸되어,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고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책소개

Glory to God선교회 대표/이훈구 장로
크리스천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딸 둘, 아들 하나, 세 자녀 모두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으로 서게 된 것과 자녀 모두 20대 중반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크리스천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가 출간됐다.

G2G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이훈구 장로는 "인생 1막 60세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했다"며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

요로 하는 마음과 삶에 임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귀한 선물들을 소개했다"고 프롤로그에 수록했다.

또한 저자는 "현대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 꼭 필요한 시대다. 이 책을 통해 어찌하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독자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출간 목적도 귀띔한다.

본서는 총 7부로 1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한 선물', 2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이야기', 3부 '사업과 선교 그리고 삶의 이야기', 4부 '취미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5부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고 싶은 믿음', 6부 '나의 신앙 에세이', 7부 책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로 구분되어 50여개의 글로 구성됐다.

한편 박명호 교수(계명대학교 석좌교수)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추천사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김영철 장로(미주한인전화운동협의회 회장), 권영배 목사(맥알렌한인교회

담임)도 필독할 것을 추천했다.

이훈구 장로는 2000년 미국 주재원으로 LG 전자

미국/멕시코 레이노사법원에서 18여년동안 근무했으며 2005년 G2G 선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남부개혁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책 구입은 미주 내 서점에서 가능하다.

저자 연락처: G2GMSSION@hotmail.com
(이성자 기자)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 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 청빙 대상 및 자격

-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석종신 분
-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 지원 자격

-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환 가능)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 (6) 설교-최소한 2편 이상(설교 주소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 (7) 가족사진

■ 지원 방법

-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 보낼 곳(우편 주소):

-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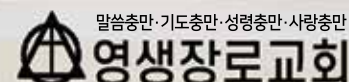
-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 3. 학력 증명서
-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 (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 6. 최근 설교 영상 2편(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충만·기도충만·성령충만·사랑충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인/터/뷰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디모데목회훈련원 사역 ... 전 지역을 교구 삼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살리는 일 집중

'바울의 목회'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35년 동안 영생장로교회를 섬겨온 이용걸 목사는 선교에도 남다른 관심과 소명이 있어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사역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담부 2:2 말씀에 의지하여 은퇴 후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하

여 목회훈련원을 세우고 지난 6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자를 살리는 일,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 오고 있는 디모데목회훈련원의 태도와 사역내용 및 금번에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전도집회에 관해 들어 보았다.



△ 자유롭게 못한 중국선교...역으로 중국목회자들 미국으로 초청

저는 사역할 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7~8명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었지요. 그들 중 대부분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하고 개척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번은 제가 중국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설교를 2시간 이상을 해도 교인들은 설교를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열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조선택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곳에 자주 공안원이 와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으로 세미나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3일은 목회와 교회사역을 설명하고 3~4일은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었죠. 그 당시 비행기 표가 비싸므로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 매년 15명만을 초청했고 그 사역을 13년 동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르친 결과 중국에 지금 한 140~50명이 제자와 같은 형, 아버지, 멘토라고 불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중국 집회에 갔다가 미국에 초청되어 배워간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여섯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부 가르친 대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보수 신앙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중국 제자들 교회만 순례해도 내가 할 일이나'라고 마음 다짐을 했습니다.

△ 사역위한 재정을 위해 기도 중 뜻하지 않게 받은 은퇴금이 시드머니 돼

이러한 사역을 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은퇴금 9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50만 달러는 목회자 훈련

을 위해 도네이션을 하였고 나머지 47만 달러는 어려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증했습니다. 은퇴 후 중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었으나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더믹 전인 2019년도에 거제도에 이들을 초청하여 3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쳤고 팬더믹으로 인해 2~3년 쉬었다가 작년 9월에 한국으로 다시 초청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 은퇴 후 영생장로교회 부속 '영생목회훈련원' 설립, 후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뜻있는 분들이 모여 '디모데목회훈련원'으로 거듭나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목회자세미나를 많이 하였기에 은퇴 후에 영생장로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이 저를 도와주어 영생목회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중남미, 동남아, 미국 내 여러 지역 교회협의회 혹은 교단 등에 초청을 받아 '목회자를 살리는 일,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시드머니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누저지동산교회 운영

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5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아 정다니엘 장로님의 도움으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디모데목회훈련원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영생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뜻이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교회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 교회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는데 이제는 전 지역을 교구 삼아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목회훈련원의 목적입니다.

△ 팬데믹의 침체를 지나며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교인 다시 찾아야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있는 교회도 교인 출석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약 80% 정도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50~60%만이 출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교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

하고 부흥으로 나아가야 하는 마음에 '잡자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일깨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전도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분위기를 일깨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 디모데목회훈련원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전도집회'

저는 개척한 이후 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제일 큰 행사인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교인들이 은혜받은 분은 이번 전도 집회에 강사로 초청한 이영희 전도사입니다. 이영희 전도사는 현역 군인 출신이었고 사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 지금도 전도 현장을 뛰는 전도사입니다. 이영희 전도사는 8천~9천 명을 전도했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전도사를 각 교회마다 소개하고 전도 집회를 알선했지요. 교회마다 전도 집회를 원하는 했지만 서로의 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있어 디모데목회훈련원에서 주최가 되어 직접 초청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동부와 서부를 잇는 이영희 전도사의 전도집회

작년에 LA에 있는 나성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서부역시 교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성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3월 20일 오전 10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목회자의 영성 회복이 되어야하고 목회 철학이 분명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목회를 중심으로 35년 동안 지나온 목회들을 말씀



이용걸 목사

드리면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이제 온라인예배에서 현장예배로!! 애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미국 전체에 전파되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일단 교회에 나오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팬데믹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는 변형된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마음이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캔터키주 애즈버리 신학교에서 신학생 한 명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애즈버리 신학교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나라 1907년 부흥이 생각났습니다. 이민교회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할 일이 있다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미국 전체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일정에 관한 것은 ptsmission.org에서 볼 수 있다.

(홍현숙 기자)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귀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에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Icon of a food box with a price tag of \$50. Text: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Icon of a box with a price tag of \$100. Text: 5인 가족 피복/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Icon of a tent with a price tag of \$200. Text: 5인용 안전/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선택형 키트)